

“노인복지·일자리 연계...통합형 사회공헌 모델 추진”

GS칼텍스, 지역 복지기관과 나눔 사업 ‘맞손’ 지역 전문기관과 지속 가능한 복지 체계 확장

GS칼텍스는 최근 여수시니어클럽에서 지역 복지기관과 함께 ‘GS칼텍스 사랑나눔터 반찬 지원사업’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취약계층 노인 복지 및 일자리 창출을 연계한 통합형 사회공헌 모델을 추진한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협약은 GS칼텍스가 지난 2008년부터 여수에서 지속해 온 ‘사랑나눔터’ 사업을 한 단계 발전시키는 계기로, 기업이 축적해 온 사회공헌 역량과 지역 전문기관의 실행력을 결합하기 위해 마련됐다.

GS칼텍스는 그동안 무료급식, 반찬 지원을 통해 누적 100만식 이상의 식사를 제공하며 지역 취약·독거 노인들의 결식 문제 해소에 기여해 왔다.

특히 코로나19 이후에는 신속하게 반찬 배달 체계로 전환하는 등 위기 상황에 서도 지원을 지속하며 지역사회로부터 깊은 신뢰를 받아왔다.

이번 사업은 여수시니어클럽이 운영을 맡아 노인일자리 참여자가 직접 반찬을 제조하고, 지역 복지기관을 통해 돌봄이 필요한 노인 가정에 전달하는 구조로 운영된다.

이를 통해 단순 지원을 넘어 ‘일자리 창출-돌봄 제공-지역사회 연대’로 이어지는 선순환 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또 여수시노인복지관과 미평·문수·소라종합사회복지관 등 지역 복지기관과 협력해 ‘노인맞춤돌봄서비스’ 대상자 중 식사 지원이 필요한 취약·독거 노인을 우

선 발굴하고, 생활지원사를 통한 안부 확인 및 생활 모니터링을 병행함으로써 통합 돌봄 기능을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GS칼텍스 관계자는 “여수시니어클럽과 같은 전문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보다 지속가능하고 체계적인 복지 모델로 발전시키게 돼 매우 뜻깊다”며 “이번 협약을 계기로 지역사회와의 협력을 더욱 강화하고,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실천하는 대표적인 상생 모델로 ‘사랑나눔터’ 사업을 지속 확대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김정란 여수시니어클럽 관장은 “GS칼텍스는 오랜 기간 지역과 함께하며 신뢰를 쌓아온 기업으로, 이번 협력을 통해 노인 복지와 일자리 창출이라는 두 가지 과제를 동시에 해결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며 “기업과 지역이 함께 만들어 가는 모범적인 복지 모델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송원근 기자 swg3318@gwangnam.co.kr



GS칼텍스는 여수시니어클럽에서 지역 복지기관과 함께 ‘GS칼텍스 사랑나눔터 반찬 지원사업’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사진제공=GS칼텍스

광주 남구통합자원봉사지원단, 재난현장 ‘선한영향력’

산불·수해 등 복구활동 앞장 지원군 역할 ‘특출’

광주 남구 통합자원봉사지원단이 재난 현장에서 신속하고 체계적인 대응으로 지역사회 안전망을 구축하며 선한 영향력을 전파하고 있다.

16일 남구에 따르면 남구 통합자원봉사지원단은 지난 2021년 출범한 민관 협업 단체로 남구청을 비롯해 남구자원봉사센터, 남구체육회, 주민자치회장단협의회, 통장단협의회 등 12개 단체로 구성됐다.

이들은 태풍을 비롯해 집중호우와 화재, 건물 붕괴 등 각종 재난 현장에서 복구 활동과 함께 구호 물품 지원 등 다양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

특히 올해는 지난 3월부터 재난 예방을 위해 상습 침수지역을 중심으로 배수로

사진 점검과 정화활동 등을 나섰다.

남구 통합자원봉사지원단의 활동이 주목을 받는 이유는 전국 현장 중심 지원 활동으로 재난 상황에서 가장 먼저 움직이는 지원군 역할을 담당했기 때문이다.

실제 2023년 6월 충남 논산 일대 농가에서 6호 태풍에 의한 피해가 발생하자 곧바로 수해 복구를 지원했고, 2024년 7월에도 재차 피해를 당하자 다시 힘을 보탰다. 또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유가족 지원을 위해 무안공항 현장에서 급식을 지원하고, 현장 자원봉사자와 관계자의 심리적 안정을 위한 ‘심~ing’ 프로그램도 제공했다.

지난해 4월과 같은해 12월에는 경북의 성 산불 피해 긴급 복구 지원과 광주 대표



광주 남구 통합자원봉사지원단이 재난 현장에서 신속하고 체계적인 대응으로 지역사회 안전망을 구축하며 선한 영향력을 전파하고 있다. 사진은 산불 피해 현장을 복구하는 광주 남구 통합자원봉사지원단 모습.

도서관 건물 붕괴 현장에서 급식을 지원하기도 했다.

남구 관계자는 “앞으로도 다양한 재난 대응 훈련 시행과 지속적인 협력을 통해

더욱 전문적인 봉사 체계를 구축하고, 더 안전한 지역사회를 만드는 데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송태영 기자 sty1235@gwangnam.co.kr

본보 운용성 기자 ‘3월의 기자상’ 수상

광주전남기자협회 선정...취재력·완성도 높게 평가

본보 운용성 산업부 기자(사진)가 광주전남기자협회 ‘3월의 기자상’ 수상자로 선정됐다.

광주전남기자협회(회장 박진표)는 16일 ‘3월의 기자상’을 발표했다.

윤 기자는 유명 브랜드 할인행사 상품...알고 보니 ‘가품’(본보 3월 17일자 7면)을 보도했다.

윤 기자는 최근 해외 직구 열풍이 이어지면서 해외발 위조 명품의 국내 유통이 증가하고 가짜명품을 ‘병행 수입’ 제품으로 속여 유통하는 방식은 지역 소비자를 기만할 뿐만 아니라 국내 정품 시장과 생산자에게도 큰 피해를 주는 점을 집중 보도했다.



또 정식 매장이나 온라인 판매사이트가 아닌 곳에서 폐점할인 등의 명목으로 큰 폭의 할인 판매가 이뤄지는 경우 사기 피해로도 이어질 수 있어 유의해야 한다는 점도 지적했다.

특히 현장의 문제를 집요하게 파고든 취재력과 완성도 높은 기사로 높은 평가를 받았다.

한편 광주전남기자협회는 매월 18개 지회에서 제출한 취재·기획기사를 심사해 ‘이달의 기자상’을 선정하고 있다.

송태영 기자 sty1235@gwangnam.co.kr



농협 광주본부 16일 농가주부모임 광주시연합회와 함께 고령 농업인과 소외계층을 위한 ‘친儼儼 사랑의 밑반찬 나눔 및 생명지킴 캠페인’을 펼쳤다.

농협 광주본부 ‘친儼儼 사랑의 밑반찬 나눔’ 봉사 고령 농업인·취약계층 대상 열무김치 전달

농협 광주본부는 16일 (사)농가주부모임 광주시연합회와 함께 관내 고령 농업인과 소외계층을 위한 ‘친儼儼 사랑의 밑반찬 나눔 및 생명지킴 캠페인’을 펼쳤다.

이날 행사에는 이철호 농협 광주본부장을 비롯해 임문재 삼도농협 조합장, 정상윤 본량농협 조합장, 황금숙 (사)농가주부모임 광주시연합회 회장 등이 참여해 농가주부모임 회원들과 함께 제철 열무김치를 정성껏 담그며 이웃사랑 실천에 힘을 보탰다.

‘친儼儼’은 ‘기득 차다’는 의미의 ‘친’, ‘반찬을 뜻하는 ‘儼(儼)’, 도움을 의미하는 ‘儼(儼)’이 결합된 농가주부모임의 대표 봉사활동이다. 이번 행사는 봄철 입맛을 잃기 쉬운 농촌 어르신들의 건강한 식

생활을 돕고, 홀로 사는 어르신들의 안부를 살피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봉사자들은 갖 담근 열무김치와 함께 ‘생명사랑 자살 예방 안내장’을 취약계층 가구에 직접 전달했다. 안내장에는 마음 건강을 지키는 방법과 상담 전화번호 등이 담겨, 위기 상황 시 신속하게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이철호 농협 광주본부장은 “바쁜 영농철에도 나눔과 봉사에 동참해 준 농가주부모임 회원들께 깊이 감사드린다”며 “앞으로도 생명지킴 추진본부 등 유관기관과 협력을 강화해 농촌 지역에 생명 존중 문화 확산을 꾀하고, 건강하고 따뜻한 농업·농촌 공동체를 만드는 데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이승훈 기자 photo25@gwangnam.co.kr



대한법률구조공단 광주지부는 16일 광주회생법원을 방문해 김성주 법원장과 간담회를 갖고, 파산·회생 절차의 실무 개선과 신속한 지원 방안을 논의했다. 사진제공=광주회생법원

광주회생법원-법률구조공단 광주지부 간담회 파산·회생 등 실무 애로 공유·제도 개선 논의

광주·전남 지역 취약계층의 파산·면책 절차를 보다 신속하게 지원하기 위해 광주회생법원과 공공기관 간 협력 논의가 이뤄졌다.

대한법률구조공단 광주지부는 16일 광주회생법원을 방문해 김성주 법원장과 간담회를 갖고, 파산·회생 절차의 실무 개선과 신속한 지원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경제적 위기에 처한 지역민들이 보다 빠르게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현장의 애로사항을 공유하고 제도 개선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파산·면책 절차 과정에서 실무진이 겪는 어려움을 중심으로 구체적인 협력 방안이 논의됐다.

양 기관은 이번 간담회를 계기로 완화된 실무 기준과 ‘신속면책제도’가 현장에

서 실질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법률구조공단은 향후 파산 신청 대리 과정에서 취약계층 해당 여부를 적극 소명해 제도 적용 사례를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박양규 대한법률구조공단 광주지부장은 “기초생활수급자나 장애인 등 취약계층이 신속한 면책이 절실하다”며 “현장에서 겪는 어려움과 개선 필요 사항을 적극 반영해달라”고 요청했다.

김성주 광주회생법원장은 “개원 이전에는 타 지역보다 엄격한 기준이 적용돼 주민 불편이 있었다는 점을 알고 있다”며 “지난 3월 새로 마련된 실무준칙을 통해 기준을 완화했고, 신속한 결정으로 지역민들이 조기에 사회로 복귀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임영진 기자 looks@gwangnam.co.kr



신재정 광주다사랑병원 원장(오른쪽)은 최근 서울 코엑스 그랜드볼룸에서 열린 ‘대한병원협회 제67차 정기총회’에서 국민보건의로 향상에 이바지한 공로로 보건복지부 장관 표창을 수상했다.

신재정 광주다사랑병원장, 복지부 장관 표창

국민보건의로 향상 공로

신재정 광주다사랑병원 원장이 최근 서울 코엑스 그랜드볼룸에서 열린 ‘대한병원협회 제67차 정기총회’에서 국민보건의로 향상에 이바지한 공로로 보건복지부 장관 표창을 수상했다.

광주다사랑병원은 지난 2001년 전국 최초로 알코올전문병원으로 개원해 정신질환자와 중독환자를 분리해 전문적으로 중독환자를 진료하고, 환자의 상태에 따라 단계에 맞는 치료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다.

특히 임상심리사와 간호사, 사회복지사 등의 개인 상담사를 운영, 알코올전문병원의 모델이 됐으며, 이는 전국에 9개의 알코올전문병원이 개원하는 계기가 됐다

는 평가를 받는다.

아울러 중독전문치료방법을 공유하고자 매년 전문서적 출판과 회보 동영상 12편을 제작해 전국에 배포하고도 있다.

신재정 원장은 “알코올 중독 질환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진 상황에서 알코올치료전문병원으로서의 역할이 중요해 지고 있다”며 “중독 환자에 대한 체계적인 회복 훈련 프로그램으로 온전한 사회복귀를 목표로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산하 기자 goback@gwangnam.co.kr

본사방문

▲이정현 국민의힘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 예비후보